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265호 1판 (음력 5월 10일)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광주·전남 '10대 현안' 해결 나서라

지역 의원들 국회 상임위 교문·산자·농해수위에 집중 배치

차 100만대·세계 수영대회·무안공항 활성화 등 역할 기대

20대 국회 원 구성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의원 18명이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확정되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지역민들은 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교육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상임위에 지역 의원들이 집중 배치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3일 국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지역 의원은 6선으로 최다선인 국민의당 천정배(서구을) 공동대표가 국방위원회,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4선 박주선(동남을)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4선 김동철(광산갑)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

3선 장병완(동남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재선인 권은희(광산을)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초선 3명 가운데 송기석(서구갑)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북구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김경진(북구갑)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결정됐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배정된 만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산자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교문위) 성공 개최 등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박근혜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등이 20대 국회 전반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목포) 원내대표와 이용주(여수갑)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주승용(여수을)·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운영위	박지원
법사위	이용주(간사) 박지원
기재위	박준영
미방위	김경진(간사)
교문위	송기석(간사) 이정현
외통위	박주선
국방위	천정배
안행위	권은희(간사)
산자위	장병완(위원장) 손금주(간사)
정보위	박지원
복지위	김동철
국토위	윤영일(간사) 주승용 최경환
농해수위	황주홍(간사) 이개호 정인화
예결위	이개호 이정현 이용주
윤리위	김동철(간사)

광주 5대 현안사업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 2019 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
- 에너지밸리조성 특별법 제정
- 5·18 특별법 개정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전남 5대 현안사업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기반 구축
- 목포～제주간 해저고속철도
-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 광양항 활성화
- 드론·에너지신산업 등 미래전략

새누리당 이정현(순천)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장성·영광·함평)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이정현·이개호 두 의원은 애초 희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포함돼 지역 예산을 챙기게 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용주 의원이 유일하게 예결특위에 소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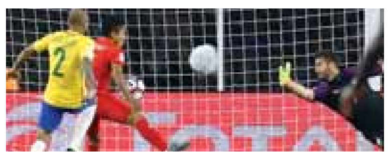
전남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기반 구축(국토위)과 섬 가꾸기 사업(농해수위) 등의 해결이 기대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 61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명단 ▶16·17면

영산강 '녹조 비상' 13일 나주시 영산대교 아래 강물이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푸른색을 띠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영산강 죽산보 구간 남조류 개체수는 2525개/㎖로 수질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기준치(1㎖당 1만개 이상)는 밑돌고 있지만, 환경당국은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경우 녹조가 확산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3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 ▶7면



삼바의 브라질 울린 '신의 손' ▶21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신입생이 없어요"

전남 초등 6곳·분교 32곳 올해 입학식 못해

427개 학교 중 169곳 입학생 10명도 안 돼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학교정보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 서비스에 올라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초등학교(분교 포함) 중 1395개교가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수를 공시한 초등학교가 6218곳임을 고려하면 약 22%, 5곳 중 1곳의 학교가 입학생이 10명 미만이었던 셈이다.

전남의 경우 초등학교 169곳과 분교 64곳의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전체 초등학교가 427곳인 것을 감안하면 전남 초등학교의 39.6%가 10명 미만의 신입생을 받았고 분교 64곳은 모두 신입생이 10명이 못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6곳이었고 분교 32곳도 입학생이 '0'명이었다.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전남지역 중학교(분교 포함)는 72곳이었고 이중 분교 3곳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구 감소가 끝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감소 시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미국 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최소 50명 사망·53명 부상

29세 용의자 현장 사살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12일 새벽(현지시간) 인질극과 함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50명이 숨지고 53명 이상이 다쳤다. 희생자 규모가 2007년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32명 사망, 30명 부상)을 크게 웃도는 이번 참사는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총격사건 용의자로 확인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이 범행 직전 911에 전화를 걸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충성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사회에 큰 충격에 빠졌다.

총격은 이날 새벽 2시께 올랜도에서 인기 있는 게이 클럽인 '펄스'에서 발생했다. 소총과 권총, 폭발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장치' 등으로 무장한 괴한은 클럽 앞을 지키던 경찰관과 교전한 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3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클럽 안은 주말 밤을 즐기던 100여 명의 남녀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클럽 안에 있던 인원이 약 300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특수기동대(SWAT)를 투입해 폭발물과 장갑차로 클럽 벽을 뚫고 클럽에 진입한 후 인질 30명가량을 구출했다. 용의자는 총격전 끝에 사살됐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오마르 마틴(29)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평소 IS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온데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점에 주목, IS와의 연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중이다.

/연합뉴스